국내
마감시황

2026.4.10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휴전 기대감 이어지며 상승

트럼프, 이스라엘에 레바논 공습 자제 요청

트럼프, 이란과의 협상 낙관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중단 요구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858.87pt (+1.40%)	1,093.63pt (+1.64%)	878.78pt (+1.51%)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84.40 원 (+9.7 원)	3.6630% (+0.3bp)	6,856.00pt (-0.11%)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12,282 억	-822 억	+853 억
외국인	+11,020 억	-50 억	+2,034 억
기관	-2,937 억	+930 억	-2,578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감이 유지되며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과를 낙관하며, 이스라엘에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노이즈 또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이 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도 트럼프는 입장을 번복하며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우려보다는 기대를 반영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1%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KOSPI는 1.40%, KOSDAQ은 1.64%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3.4조원, KOSDAQ은 약 13.3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에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기계/장비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를 이틀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기계/장비와 통신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건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호실적의 훈풍이 반도체 소부장까지 확산되며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광케이블 수요 증가 기대에 통신장비주가 상승했습니다. 실리콘 커패시터와 ABF 기판을 동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구조라는 평가를 받으며 삼성전기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력기기, 금융, 방산주도 반등했습니다. 한편, 전일 강세였던 유통 업종이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하락했습니다. 바이오, 2차전지 업종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대한광통신(+25.32%), 삼성전기(+9.50%), 이오테크닉스(+5.04%)가 올랐고, BGF리테일(-11.30%), 롯데쇼핑(-3.96%), LG에너지솔루션(-2.14%)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